

# 時 論



글·이 석 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안양 동안갑)

요즈음 국가간 국경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로 세계화·개방화·국제화라는 시대적 흐름속에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의 소용돌이가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의료서비스산업 역시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세계화와 무한경쟁시대에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대비하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산업의 경우, 그 특성상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자본투자가 요구되는 반면, 첨단제품의 경우 기술변화에 민감하여 기술개발이 늦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도태되는 등 위험 또한 상당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산업의 경우 국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의료시장 현황을 보면, 미국과 일본이 시장우위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있고, 최근들어 인도, 러시아 등 신흥강국들의 성장역량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의료산업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기 보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외국으로부터의 주요 의료장비에 대한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에 전세계에서

의료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투자와 관련제도의 정비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서는 물적 자본의 투자와 우수한 인적 자본의 체계적인 양성이 필요하며, 국회와 정부, 민간이 힘을 합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이를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빨리 ‘늙은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회전반의 급속한 노령화로 말미암아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료관련산업의 폭발적인 팽창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의료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투자와 관련제도의 정비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적 자본의 투자와 우수한 인적 자본의 체계적인 양성이 필요하며, 국회와 정부, 민간이 힘을 합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이를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생존전략이 과거의 굴뚝산업에서 무공해 첨단 의료산업으로 그 성장동력을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오는 2007년, IHF 총회의 한국 개최는 각국 병원간 정보교류는 물론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여러 의견과 제안들이 폭넓게 논의되어 다양하고 좋은 정책대안들이 제시되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도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병원협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